

오브라헤를 통해 살펴 본 스페인 식민지의 경제 체제: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을 중심으로*

김희순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김희순(2014), *오브라헤를 통해 살펴 본 스페인 식민지의 경제 체제: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을 중심으로*.

초 록 본고에서는 스페인 식민시기 스페인령 부왕령에서 발달한 대규모 모직 생산 양식인 오브라헤의 발달 배경 및 과정 쇠퇴를 통하여 스페인의 식민지 경제 체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스페인은 식민지를 원료의 산지 및 공산품의 소비지로 삼고자 하였으나, 식민지의 수요를 충족할 만한 공산품을 제공할 수 없었다. 또한 스페인 왕실은 식민지와의 무역 독점을 통해 세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스페인의 식민 지배 기간 동안 스페인령 아메리카는 상당 정도의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식민지에서 어느 정도의 공산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식민지배 기간 동안 스페인령 아메리카에서 발달하였던 대규모 모직물 생산 양식인 오브라헤는 식민지적인 특성이 강한 산업이었다. 우선 오브라헤는 스페인으로부터 건너온 기술자들이 역시 스페인으로부터 전래된 양모로 모직물을 만들면서 형성되었다. 스페인 왕실의 무역 독점이라는 식민지 경제 체제로 인하여 유럽 및 스페인산 상품에 비해 가격 면에서의 경쟁력을 지닐 수 있었으며 이는 오브라헤의 발전 요인이 되었다. 나아가 오브라헤에 투입된 노동력은 엔코미엔다 및 레빠르띠미엔도 제도를 통해 충당되었으며, 식민지의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오브라헤는 노예제와 강제적인 부채 노동력도 이용하였다. 누에바 에스파냐의 오브라헤는 스페인 식민지 전역에 수출될 정도로 발달하였으나, 스페인의 식민지 정책의 변화, 즉 부르봉 개혁을 통한 자유 무역을 통해 붕괴되기 시작하였으며, 식민지배의 종식과 함께 사라졌다.

핵심어 오브라헤, 스페인 식민지배, 누에바 에스파냐, 무역 독점, 섬유산업, 부르봉 개혁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I. 서론

식민시기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과 페루 부왕령에서 스페인으로 유출된 은, 금은 식민 모국 스페인의 경제 및 식민지 유지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은광업은 스페인 식민지에 광범위하고도 매우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 은광의 발달은 부유한 광산 도시 발달의 원인이 되었고 그 배후 지역이 광산업 관련 제품 및 식량, 소비재의 생산지로 발전하는 동기가 되었으며 은의 수송과 관련된 항구 및 항로는 스페인 식민지의 군사 및 무역 분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은광업 및 그로 인한 스페인 및 스페인 식민지에의 영향은 스페인의 식민사 연구에서 매우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분명 은의 생산은 스페인 식민지에서 주요한 산업이었다. 그러나 이는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이었다.

반면 스페인령 아메리카에는 삼백년이 넘는 식민기간 동안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 또한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였다. 더구나 식민지 경제에 대하여 왕실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이윤을 얻고자 하였던 스페인의 식민지 경제 정책 하에서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경제는 식민지배 제도 및 식민 본국과의 관계, 여타 식민지와와의 관계 등 생산 및 소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여러 정치,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스페인은 준비된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지는 못하였으나, 모든 공산품을 스페인 본국에서 생산하여 식민지에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스페인의 산업 및 경제 상황은 식민지의 수요를 감당할 만큼 발달하지 못하였고,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대부분의 공산품은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고가의 사치품이 되었다. 따라서 산업 분야 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섬유 산업이 스페인령 아메리카 지역에서 발달하게 되었다. 스페인의 식민지배 이후 그 정교함과 품질이 유지되지는 못하였으나, 아스텍 제국과 잉카 제국에서는 일찍부터 섬유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이는 식민지배 이후 스페인령 아메리카에서 자연스럽게 섬유 산업이 자생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스페인령 아메리카에서는 식민 이전 시기의 전통을 이어받은 면직물 산업과 스페인 식민지에서 전래된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였다. 이 중 식민 지배 시기 스페인령 아메리카에서 발달한 모직물 생산 양식을 오브라헤라 한다. 오브라헤는 모직물의 생산 과정이 한 장소에 집중되어 있고, 생산 작업이 분화되어 있으며, 생산 규모가 비교적 대규모라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현대의 공장 체제와 매우 유사하다. 오브라헤는 스페인이 식민지배를 한 약 3세기의 기간 동안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에서 발달하였으며, 페루 부왕령 및 라 플라타 부왕령에서도 오브라헤를 통한 모직물 생산이 이루어졌다. 누에바 에스파냐의 오브라헤는 식민지 경제의 특성상 발생하였으며 이는 18세기경에는 이미 식민지에서 필수불가결한 제도가 되었다. 2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의 발전으로 인해 오브라헤 및 모직물은 식민지 경제에 깊이 뿌리내렸다(Greenleaf 1967, 249). 스페인 식민지에서 발달한 대부분의 산업이 식민모국으로의 수출과 관련된 데 반해 오브라헤는 식민지 내의 내수용 산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그러나 식민지배의 종식과 함께 급격히 쇠퇴하였다.

과거의 특정 산업의 발달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산업 자체에 대한 연구로서의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그 산업이 형성된 사회의 기술, 경제, 정책 등과 사회 전반의 상황을 통해 당시의 사회를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현재 그 사회의 경제 및 사회를 이해하는데도 주요한 배경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민시기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에서 이루어졌던 전산업적인 모직물 생산 체제인 오브라헤를 통하여 스페인과 식민지 간의 경제적 관계 및 스페인 식민지배의 경제적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오브라헤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자 쇠퇴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스페인의 식민지 경제 정책의 특성 및 누에바 에스파냐 경제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오브라헤의 생성 및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식민지배와 18세기 이루어진 부르봉 개혁 및 유럽 경제의 영향이 오브라헤의 해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명 오브라헤는 스페인 정부가 굳이 의도한 경제 행위는 아니었으며 종종 스페인과 식민지 간

에 형성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문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식민시기, 스페인 정부의 폐쇄적인 무역 정책은 오브라헤가 외국 상품과의 경쟁에서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하였으며,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의 모직 산업은 높은 비교 우위를 지닌 영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하였다. 이는 식민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 여타 산업과는 다른 시각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II. 스페인의 식민지 경제 정책

1. 스페인 왕실의 식민지 경제 정책

식민지 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저렴한 가격에 가공하지 않은 원료를 수입하고, 높은 이윤을 남기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식민모국은 제조업의 성장 뿐 아니라 무역을 통한 상업 자본 및 금융 부문의 성장을 이루게 되며, 위험한 장거리 항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물류업 등이 성장함으로써 근대적인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스페인의 식민지배 과정에 대해 경제학자들이나 경제사가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는데, 스페인이 오랜 식민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고, 오히려 국내의 제조업의 기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스페인 정부가 식민지에 대해 펼친 경제 정책은 중상주의 정책이나 명확한 이론적 근거나 사전 준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중상주의의 초기 단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페인 정부의 식민지 경영은 국가의 힘과 부의 증진이 목표였다. 스페인 정부는 이를 위해서는 금과 은의 축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또한 스페인령 아메리카는 엄밀하게는 카스티야 왕실의 소유였다. 따라서 스페인 아메리카에 대한 식민 경제 정책은 카스티야 왕실의 재정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국가가 아닌 왕실을 위한 경제정책은 스페인이라는 국가 전체의 부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수입의 극대화를 통한 왕실 재정의 확보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페인의 국가적 경제에 큰 도

움이 되지 못하는 정책들이었다.

은이나 금, 다이아몬드 같은 귀금속 광물 및 사탕수수, 생강, 담배, 목재 등의 농림 자원의 수탈 이외에도 스페인 왕실은 식민지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독점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윤을 얻었다. 스페인 왕실은 15세기 말부터 세금 징수, 면허권의 발급, 여러 특권, 임대료 징수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을 왕실의 재정으로 취하였다. 이를 위해 스페인 왕실은 1503년 세비아(Sevilla)에 무역 사무소(Casa de Contratación)¹⁾를 세웠다. 스페인 왕실은 무역 사무소를 거치지 않은 외국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스페인 식민지와 거래할 수 있는 독점권을 세비아에 부여하였다. 카리브해를 향해 항해한 배들은 반드시 세비아에서 출발하여 다시 돌아와야 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루카르(Sanlúcar) 및 까디스(Cádiz) 항을 이용할 수 있었다.²⁾

스페인 왕실은 식민지에서 소비되는 모든 상품을 독점해서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스페인의 산업으로는 스페인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다.³⁾ 스페인 과 식민지 간의 무역에서도 스페인이 식민지에 공급한 제품은 올리브유나 포도주와 같은 1차 산업 부문의 상품이 주를 이루었다. 나아가 스페인 왕실은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외국인에 대한 배타주의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이는 취약

- 1) 무역 사무소는 인디아스 자문회의와 함께 스페인 왕실의 식민지 경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기구로, 1503년 개설되었으며 1790년 폐지되었다. 무역 사무소는 출입국 관리, 세관업무, 신대륙에서 국왕에게 바치는 킨토세(1/5세), 항해학교의 운영 등을 관장했으며, 재판소의 기능까지 갖추었다. 또한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반에 이루어진 여러 탐험도 조직하였다. 무역 사무소에서는 무역에 대한 업무 뿐 아니라 선박의 구매, 식민지로의 이주민 모집 등을 담당하였고 새로운 영토 및 부속 자원을 지키기 위한 물자 및 군수용품도 구매하였다.
- 2)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상인들은 스페인의 다른 항구 및 유럽과도 교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청원을 하였지만 스페인 왕실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식민지의 상인들이 원하는 자유무역을 허가할 경우 왕실의 세수입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왕실이 세비아의 상인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수입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 3) 스페인이 제조업의 역량이 전혀 없는 국가가 아니었다. 14세기 경 이미 카스티야 왕국은 메리노 울의 최고의 생산지로 생산품의 대부분을 유럽으로 수출하였다. 또한 카스티야 지역은 프랑스, 한자 동맹 도시들, 카탈루냐 지역 등에 철, 백반, 소금, 포도주, 올리브유, 레몬, 아몬드, 과일, 쌀, 섬유 제품 등을 수출하였으며 지중해 지역의 강력한 무역 세력이 되었다(Kinsbruner, 2005, 7).

한 스페인 국내 산업의 역량을 더욱 약화시켰다. 16세기 경 스페인의 농업 및 제조업은 무어인을 비롯한 프랑스인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었으며 스페인의 지배층은 외국인이 산업분야의 노동자로 근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1568년 그라나다의 무어인들이 펠리페 2세의 정책에 항거하여 모반을 일으키자 수많은 무어인들이 국외로 추방되었으며 이는 결국 스페인 농업의 쇠퇴로 이어졌다. 무어인들의 추방은 15세기 말 이루어진 유태인의 추방만큼이나 스페인의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평가된다.⁴⁾

세비야의 상인들은 신대륙과의 교역에서 필요했던 상당 부분의 제조업 상품을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여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최영수 1990, 175-176). 이에 세비야 상인들은 제노바, 피렌체 등의 상인 및 유태인 상인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빌려 일종의 중계 무역을 하였다. 식민지 상품을 스페인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은 왕실 재정에는 큰 이익이 되었다. 상인들이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식민지에 재판매하는 이 과정에서 상인들은 세비야에서 한번, 그리고 식민지의 항구에서 또 한 번 관세를 치뤄야 했으며 이로 인해 왕실의 수입은 증가하였다.

스페인 경제의 이러한 취약점은 유럽의 제조업자들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생산업자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하였다(Hamnet 1971, 2-3). 모직물을 비롯한 많은 상품들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 수입되었고, 그 대금은 막대한 양의 은으로 지불했다.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는 스페인령 아메리카 지역에 밀거래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식민지에 대한 스페인의 무역 독점권에 대해 도전하였다. 스페인은 유럽 국가들과 식민지 간의 밀거래를 막기 위하여 산토 도밍고에 형성된 도시를 폐쇄하는 초강수를 두기까지 하였으나 이를 막을 수는 없었다.

4) 페인(Payne)은 1492년 이루어진 유태인들의 추방이 스페인의 식민지 정책에 결정적인 과오였다고 하였다(Payne 1970, 207). 스페인의 유태인들은 중세시기부터 상업 및 금융업, 제조업 분야를 주도하고 있었으며 왕실의 재정 또한 유태인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유태인의 추방 이후 스페인의 국내 유통 및 금융, 제조업 분야의 마비 현상이 나타나기까지 하였다.

반면, 세비야의 경제는 점점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식민지와 무역을 통해 얻은 이익은 결국 유럽의 다른 나라로 빠져 나갔다. 스페인으로부터 유입된 거대한 금·은으로 인해 유럽에서의 금과 은의 유동량이 증가하였고 이는 유럽 경제의 성장을 자극하였다. 스페인에는 물론 거대한 양의 부가 유입되었으나 빠르게 다른 나라로 유출되었고 스페인 국내에서는 고율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즉, 자본이 국내에 축적되지 못하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 빠져나감으로써 식민지에서 필요로 하는 공산품의 생산 부분에 투자되지 못하였고, 결국 스페인은 오랜 기간에 걸친 식민지배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Pons 2007, 28). 한편,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은 직물을 비롯한 기초적인 공산품을 직접 생산하여 소비하였다.

2. 누에바 에스파냐의 경제

1) 누에바 에스파냐의 산업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은 생산은 식민지의 산업 및 지역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주요 은광이 발견된 이후 은광업 지역 및 도시로 소비재와 산업재를 공급하기 위해 농업 및 목축업, 가죽 생산업 등 연계 산업이 발달하였다.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에서는 현재 멕시코 중부 지역에 멕시코의 대표적인 곡창 지대인 바히오(Bajío) 지역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이 지역의 산업화 및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은 여러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Tutino 2011). 페루 부왕령의 뽀도시 광산의 발달은 주변 지역의 농업, 목축업, 수송업 등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며, 현재 아르헨티나 북부 지역의 목축업의 기원이 되었다. 그러나 은광업을 중심으로 하는 스페인의 식민지 경제는 이 지역의 농업적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 주요국의 식민지 개척 과정에서는 목축업을 포함하는 농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⁵⁾ 스페인의 경우도 16세기 누에바 에스파냐 북부 지역을

5)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수 세기 전이었던 경제발전 상황을 감안했을 때, 당시 농업은 주요 산업이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화 과정은 영국에서 건너온 농부들의 담배 재배를 통해 이루어졌고,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세계 최초의 플랜테이

개혁하면서 목우 농장의 확산을 통해 지배 지역의 확대를 꾀하였다. 식민지의 은 생산만큼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오아하카(Oaxaca)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 코치닐, 과테말라 지역에서 생산된 인디고, 감뻘체 우드 등의 천연염료는 은과 함께 식민지의 대표적인 생산품이자 수출 품목이었으며, 스페인은 식민지에서 가져온 천연 염료를 유럽 각국에 재수출하였다. 이들은 유럽의 섬유 산업에 혁신을 가져왔으며, 특히 코치닐은 단순히 염료를 넘어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의 부를 상징하기도 하였다. 코치닐은 1858년까지 매우 중요한 교역 상품이었다(Lee 1948, 449-450).

스페인 왕실은 식민지에 대한 무역의 독점적 지위를 지님으로써 세비야나 까디스 같은 스페인 무역항을 발전시키고, 자국의 공산품에 광대하고 독점적인 시장을 열어주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스페인은 식민지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료를 수입하는 무역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카리브해 지역은 사탕수수, 생강, 담배 등을 스페인으로 수출하고 대신 공산품을 스페인에서 제공받아 식민모국과 식민지 간의 전형적인 무역 체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지역, 특히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에서는 1차 산업 중심의 수출 상품이 외에도 생필품을 중심으로 상당량의 공산품이 내수용으로 생산되었다.

스페인 왕실의 무역 독점체제로 인해 식민지로 수출되는 상품들에는 세비야 뿐 아니라 베라끄루스나 까르파헤나 등 식민지 세관을 거치면서 이중으로 관세가 부과되었다. 이에 더하여 스페인의 무역선에 대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해적이 기승을 부리자 1561년 스페인 왕실은 무장선단(flota)을 구성하였으며 그 비용은 상품을 운반하는 상인들이 부담하였고, 이는 결국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⁶⁾ 상품을 선적한 상인들은 함대에 대한 비용 뿐 아니

선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네덜란드는 아시아 지역, 특히 자바 섬에 플랜테이션을 운영하였다.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의 플랜테이션 경영은 이들 국가에게 은 못지않은 부를 안겨주었다(Morrissey, 1951).

6) 플로라는 대규모의 선단과 무장한 해군 함대 구성되었는데, 매년 4월과 8월에만 스페인의 세비야를 떠나 누에바 에스파냐의 베라끄루스, 누에바 그라나다의 까르파헤나, 뇨브레 데 디오스(Nombre de Dios, 오늘날 포르토펬로(Portobelo))를 거쳐 상품

라 항해 도중 잦은 자연재해와 해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가의 보험을 들어야 했다. 이에 스페인과 스페인령 아메리카와의 교역을 통해 상품의 가격은 3배에서 10배까지 상승한다(Pons 2007, 26-27). 따라서 스페인으로부터 수입된 제품들은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사치품이었으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었던 공산품인 섬유제품은 식민지에서의 수요가 매우 많았다. 이에 18세기까지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에서는 직접 생산한 직물 제품을 일반 주민부터 원주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하였으며, 이들 제품은 질이 양호하고 가격이 낮았다(Salvucci 1981, 198).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공산품 생산에 대한 스페인의 태도는 부정적인 것이었다. 식민지에서는 공산품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였으나, 비공식 부문의 생산이 많아 효율적인 과세가 어려웠고 과세를 위한 조사에도 상당한 행정력이 요구되었다. 소비세는 원주민에게는 부과하지 않았는데, 누에바 에스파냐 공산품의 상당부분이 원주민에 의해 생산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세수의 상당한 누락을 의미했다. 또한 생산 과정에 대한 통제도 스페인 행정부에게는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이 되었다. 나아가 식민지의 산업 발달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를 넘어 정치적인 의미를 함의하는 것이었으며, 식민지배 및 피식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인식되었다. 일례로, 18세기 말 누에바 에스파냐의 부왕 레비아히헤도(Revillagigedo)는 식민지의 생산품이 식민모국의 산업을 대체하게 되면 결국에는 정치적 순응도 불필요하다고 여기게 된다고 하였다(Salvucci 1987, 9).

2) 식민지 경제의 중심지, 누에바 에스파냐

누에바 에스파냐는 경제적인 면에서 스페인의 식민지 운영에서 매우 중요하였다. 스페인 정부는 식민지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식민지에서 충당하였으며, 대부분의 경비는 누에바 에스파냐에서 걷히는 세금을 통해 충당되었다. 스페인 왕실이 스페인령 아메리카에서 얻은 수입은 대부분 무역 독점으로 인

을 수송한 이후 쿠바의 아바나(Habana)를 출발해 다시 세비아로 돌아오는 항해가 주를 이루었다.

한 차익과 세금으로 이루어졌다. 19세기 초반 누에바 에스파냐의 세금의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면 스페인 식민지 지배에서 누에바 에스파냐가 경제적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말 훔볼트(Humboldt)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02년 경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의 수입은 약 2천만 피에스티였는데, 이 중 2/3에 가까운 세금이 누에바 에스파냐를 비롯한 쿠바, 마닐라 등의 식민지를 유지하고 변경 지역을 유지하는데 사용되었고 6백만 피에스티 정도가 왕실 재정에 귀속되었다. 세수입을 살펴보면 가장 주요한 세수원은 금과 은에서 나오는 세수입으로⁷⁾ 180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약 5백만에서 550만 피에스티 정도였다. 다음으로는 담배 제조업에 부과된 세금으로 약 450만 피에스티 정도였다. 담배 제조업 분야에 대해 과중한 세금의 부과 및 원주민에 대한 조공 폐지는 스페인 정부가 내놓은 식민지의 재정 행정에 관한 많은 개혁안들 중 가장 효율적인 것이었다. 세수원 중 세 번째는 소비세로 약 3백만 피에스티 정도였다. 원주민들에게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백인 및 메스티조들에서 연간 1.5피에스티 정도 부과되는 인두세의 개념이었다. 소비세는 본래 식민지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도 부과되었으나 세금의 추정 및 징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브라헤의 경우 길드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하였다(Humboldt 1811, 209-214).

식민지의 세금 징수는 왕실의 수입으로 직결되었기 때문에 식민 기간 내내 스페인 왕실은 세수원의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따라서 은이나 코치닐 등 스페인에 직접적인 부의 유입으로 이어지는 산업 분야에 대한 조사 및 통계는 식민지 초기부터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식민지 경제에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의 섬유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18세기에서야 이루어졌다. 이는 오브라헤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소비세는 도시별 길드에

7) 13세기 알폰소 10세와 알폰소 11세에 의해 공포된 법에 따라 왕실의 세습재산에 속한 땅에서 발견된 모든 광산은 왕실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었지만, 아메리카에서 광산 개발에 따른 위험성과 어려움 때문에 왕실은 이 권리를 포기하였고, 대신 임대자에게 광산 수입의 1/5을 받는 키포세를 부과하였다(최영수 1990, 169).

서 일괄적으로 납부하였으며, 생산량이 정확히 반영된 것이 아닌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민당국은 16세기 중반 이후 오브라헤의 노동력에 관해서는 잦은 현지 조사(visitas)를 통해 감시하고 견제하였으나 산업 자체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는 스페인 왕실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분야에 대한 스페인 식민당국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18세기 말 부왕 마요르가(Mayorga)는 1781년 오브라헤에서 걷히는 세금을 언급하면서 오브라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명령하였다. 조사의 목적은 소비세의 세수원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⁸⁾ 식민정부는 세입 증가를 위해 섬유산업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1781년에는 약간의 세수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1793년과 1799년에는 더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는 18세기 말 모직과 면직 생산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Salvucci 1987, 10).

III. 오브라헤의 형성

1. 오브라헤의 정의 및 관련 개념

일찍이 그린리프(Greenleaf 1967)는 오브라헤를 식민지에서 생산되는 모직 생산업 전체로 보았다. 그는 모직생산업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식민시기 이전부터 높은 수준으로 발달했던 면직물 공업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아즈텍 제국의 통치자들은 일찍부터 해마다 많은 양의 면직물을 조공으로 거두었으며, 콜럼버스 또한 초기 카리브해 제도 정복 사업기에 금을 조공으로 받았으나 금이 고갈되자 대신 면사나 면직물을 조공으로 거두었다. 따라서 그린리프는 식민 이전시기부터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발달한 섬유 생산업에 새로운 원료인 양모가 도입됨으로써 모직 생산업인 오브라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8) 당시 스페인의 아메리카 독립 전쟁 참전으로 인해 식민지에서 새로운 세수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부왕은 직물에 대한 세부과가 명확하게 정의된 적이 없음을 질책하면서 “부족한 세금 징발로 인해 스페인 모국의 재무부가 고통을 겪었으며, 이는 납세자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피하였기 때문이다”고 하였다(Salvucci 1987, 10).

보았다. 그는 스페인인들의 도래와 함께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모직물의 원료인 양의 도입되었다는 점과, 모직생산 분야가 면직물 생산에 비해 다양한 단계의 작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노동력 공급이 엔코미엔다 제도 및 레빠르마미엔토 제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모직생산, 즉 오브라헤를 식민지적인 산업이라고 보았다.

이에 비해 살부치(Salvucci 1987)는 면직물이 라틴아메리카 기원의 산업인 반면 오브라헤는 스페인에서 유래한 산업이라고 좀 더 명확한 구분하였다. 그는 식민 이전 시기부터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면직물이나 견직물의 생산 기술이 발달하였으나 면직물 생산업은 식민지배 기간에도 원주민 노동 위주의 소규모 생산 방식에 머물렀다고 보았다. 반면 목양업이 스페인인의 도래 및 식민지배의 시작과 함께 유래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모직물 생산업 자체가 스페인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이를 식민지적인 산업으로 보았다. 그는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에서 처음 오브라헤가 시작된 도시가 스페인인들을 위해 전략적으로 조성한 도시인 뿌에블라이며, 스페인의 세고비아 지역에서 건너온 모직물 직공들에 의해서 모직물의 생산 과정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이식되었으므로 오브라헤가 식민지를 대표하는 산업이라고 보았다.

스페인 왕실의 무역 정책의 영향으로 유럽의 상품들이 높은 가격에 수입됨으로써 오브라헤의 가격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였으며 이점이 오브라헤가 발달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반면 18세기 말 부르봉 개혁으로 인한 자유무역 체제에 노출된 페루 부왕령의 오브라헤 및 섬유 산업이 곧 와해된 것과 스페인의 식민지배 종식 이후 유럽 상품과의 경쟁에 노출된 누에바 에스파냐의 모직물 산업이 급격히 쇠퇴한 점은 오브라헤가 식민지배라는 비교적 특수한 상황에서 발달한 산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브라헤는 엄격한 의미로는 직물 생산업체를 의미하지만 누에바 에스파냐에서는 면직물과 구분하여 모직물 생산(woolen production) 전체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식민지에서 이루어진 직물 생산 양식은 크게 작업의 분화 및 규모에 따라 텔라레스 수엘토스(telares sueltos), 트라피체(trapiches), 오

브라헤 등으로 구분되었다.

텔라레스 수엘포스란 직물의 소규모의 생산 양식을 일컫는데, 장인이 경영하는 양식으로부터 수공업, 가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양식, 그리고 하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직물 생산 양식이 포함된다. 즉, 오브라헤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직물 생산 작업장으로, 직공들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농장(rancho)에서 자가로 직물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텔라레스 수엘포스는 오브라헤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직물 생산 양식을 통칭하였다. 텔라레스 수엘포스는 종사자의 수 및 생산 규모를 헤아릴 수 없었고 식민 정부의 통제도 없었다. 따라서 텔라레스 수엘포스는 직물 생산 부문에서의 일종의 비공식 부문을 형성하였다(Salvucci 1987, 10-12). 오브라헤가 도시에서 이루어진 대규모의 모직 생산업인데 반해 텔라레스 수엘포스는 주로 농촌에서 이루어진 소규모의 직물 생산업이다. 텔라레스 수엘포스는 면직물과 모직물 모두를 생산하였지만 오브라헤의 생산 규모 및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면직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텔라레스 수엘포스보다 약간 더 큰 규모가 크고 오브라헤보다 규모가 작은 작업장으로 가내 수공업의 단계는 벗어난 형태를 프라빠체라 하였다. 프라빠체는 작업과정이 어느 정도 분화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프라빠체 소유주는 어느 정도의 자산가였다. 프라빠체와 비슷한 개념으로 오브라도르(obrador)가 있었는데, 오브라도르는 면직물이나 모직물을 생산하는 작업장으로 프라빠체 정도의 규모였으며 고용주는 10명 이내의 직원을 고용한 메스띠소의 자영 방직공이 평균적이었다. 그들은 오브라헤 고용주들과 달리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사회적으로도 낮은 지위에 속하였다. 프라빠체와 오브라도르는 표면적으로는 세이(says),⁹⁾ 프리즈(frieze)¹⁰⁾ 등의 고급 모직물의 생산이 금지되었고 좀 더 가치가 낮은 모직물만을 생산할 수 있었다(Salvucci 1987, 15-16).¹¹⁾

9) 서지(serge)와 비슷한 얇은 모직물.

10) 한쪽만 보풀을 세운 거친 모직물.

11) 프라빠체나 오브라도르에서 생산된 제품은 그 지역에서 판매되었다. 바히오 지역에

오브라헤는 트라빠체보다 훨씬 규모가 큰 모직 생산업체로, 원료의 가공부터 최종 상품의 생산까지가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오브라헤는 생산 과정이 작업별로 분화되어 있고 대규모의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공장과 매우 유사하였다. 오브라헤의 건물 형태는 일반적인 주택과 비슷했다. 즉, 중정을 중심으로 2층 정도의 건물 및 부속 건물이 건설되어 위에서 보면 口자, 혹은 일자 형태를 이루었다. 건물의 1층에서 대부분의 생산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모직 생산 작업의 흐름을 따라서 작업 단계가 배치되었으며 중정은 실을 잣거나 염색을 하는 등 여러 공정에서 주요한 작업 공간이었다. 오브라헤의 노동력으로 죄수가 배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건물 내에 감방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오브라헤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죄수가 배치되지 않더라도 출입문에 경비가 배치되었다(Salvucci, 1987 33-36).

살부치는 오브라헤가 근대적인 의미의 공장으로 발전하지 못한 전산업적인 생산 양식이라고 하였다. 그는 그 근거로 오브라헤가 3백년 가까운 기간 동안 기술적 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과 직주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작업장과 주거지, 상업공간과 주거지 간에는 분리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오브라헤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오브라헤의 주인들은 자신의 사업을 ‘오브라헤 집(casa de obraje)’라고 불렀다. 주인 및 가족이 오브라헤의 2층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관리자들이 거주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오브라헤 노동자 중 상당수는 작업장에서 기거하였다. 오브라헤의 노동 규모는 30~300명까지 다양하였으나, 17세기 중반에는 40~60명 정도가 일반적이었다(Procter 2005, 46).

서는 작은 직물 가게를 트라빠체라 하였고 중부 및 남부 지역에서는 오브라도르라고 하였다. 바히오 지역에서는 트라빠체가 전체 산업 및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8세기 말 켄레타로(Querétaro)에서만 300개가 넘는 트라빠체에 1200여 명이 고용되어 있었다(Salvucci 1987, 15-16).

IV. 오브라헤의 발달

스페인은 결코 산업화된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식민지가 산업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스페인령 식민지의 섬유 생산업은 스페인 식민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으며, 유사 봉건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하였고, 정부와 사업자 간의 관계도 독특하였다(Greenleaf 1967, 228). 원칙적으로는 부정적인 스페인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식민지에서는 직물 분야에서의 생산이 두드러졌다. 직물은 기본적인 의복과 침구의 재료가 될 뿐 아니라 농장, 광산 등에서 생산용품으로서의 수요가 상당하였다. 또한 가톨릭 예배 시 일반인 여성들도 직물로 만든 미사포를 사용하여야 했다. 일반인들의 구매력은 매우 높지 않았지만 솔이나 사라빠(sarape),¹²⁾ 페티코트 등을 입지 않거나 반다나(bandanna)¹³⁾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¹⁴⁾ 이에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의류 및 모포의 재료를 직접 재배하였으며 백스트랩 직기와 같은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소비할 직물을 직접 생산하였다(Salvucci 1987, 19).¹⁵⁾ 스페인 정부는 식민지에서의 직물 분야의 생산을 용인하였다.

1. 노동력 중심 산업 오브라헤

1) 원주민 노동력

스페인령 아메리카에서의 직물의 생산은 노동 집약적이고도 고된 작업이었기에 기피 직종이었다. 마찬가지로 고된 작업을 수행하는 은광은 훨씬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였고,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의 은광 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근거리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오브라헤의 운영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12) 남성용 판초.

13) 목이나 머리에 두르는 화려한 색상의 스카프.

14) 식민지기 일반적인 원주민 남성들은 무릎 밑까지 오는 반바지와 무명 셔츠를 입고, 여성들은 치마, 긴 블라우스나 우이필, 삼각형의 솔 등을 사용하였다.

15) 이에 대해 18세기 말의 부왕이었던 레비아히에도 2세는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이 직물을 직접 재배한다고 화를 내었다(Salvucci 1987, 19).

않았으며 나아가 노동력의 확보는 오브라헤 운영에서 매우 중요하였다. 게다가 누에바 에스파냐의 모직물은 수입 모직물에 비해 질이 낮은 반면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었으므로 오브라헤로들은 모직물의 생산 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추어야 했다. 이에 그린리프는 오브라헤의 형성 원인 및 성장 동력으로서 엔꼬미엔다 제도를 들었다(Greenleaf 1967). 엔꼬미엔다 제도를 통한 강제 노동력의 동원을 통하여 노동 집약적이었던 오브라헤의 노동 수요를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즉, 누에바 에스파냐의 모직 산업이 변영할 수 있었던 것은 원주민 노동력을 노예처럼 착취하였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초기 일부 오브라헤들은 엔꼬멘데로들이 촌락 지역에 형성되었는데, 그들은 원주민 여성들을 오브라헤에 가두고 섬유 제품을 생산하게 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오브라헤는 1549년 금지되었다(Bazant 1964, 62).

한편 1549년 원주민들을 강제노동으로 활용하였던 용역제공 엔꼬미엔다(encomienda de servicio)가 금지되고 대신 현물로 받는 조세 엔꼬미엔다(encomienda de tributo)로 전환되었다. 이에 엔꼬멘데로들은 일반적으로 섬유 제품, 특히 만따(manta) 및 의류를 공물로 부과하였으며 이는 오브라헤의 발달로 이어졌다. 엔꼬미엔다에서 원주민들이 섬유산업 분야에서 노동하는 것은 금지되었지만, 1621년까지 오브라헤는 레빠르띠미엔토(repartimiento) 제도를 통해 원주민 노동력을 제공받았다(Greenleaf 1967, 230-231).

오브라헤의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으며 그 상황은 16세기 말이나 18세기 말이나 비슷하였다. 노동 시간은 새벽부터 해질녘까지였다. 어린아이들이 고용되는 일은 일반적이었고 폭력이 난무하였으며 일을 하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였다. 16세기 말 부왕령에 의하여 고용주는 고용인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였으나 18세기 말까지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Greenleaf 1967, 243-244). 19세기 초반 오브라헤를 방문하였던 흄볼트는 그 노동 환경이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기술하였다. 노동자들은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냅마를 입고 있었고, 수척하고 흉한 몰골이었으며, 죄수들과 함께 공장 내에 수감되어 있었다. 여성 및 어린이들도 같은 조건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으며 자유민인 노동자들도 죄수 노동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 (Humboldt 1811).

오브라헤가 지속된 기간 동안 오브라헤의 노동환경에 관하여 성직자들과 인도주의자들은 저항하고, 부왕들은 분노하였으며, 스페인 국왕들은 위협하였고, 과도한 규제들이 적용되었으며, 조사가 진행되었고, 재판들이 열렸으며, 벌금들이 부과되었고, 심지어 오브라헤들이 폐쇄되었다. 그러나 오브라헤라는 제도는 살아남았고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았다(Greenleaf 1967, 227). 스페인 군주들은 오브라헤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오브라헤의 노동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인도적인 의도라기 보다는 식민지의 지배계급들이 왕실의 소유인 원주민에 대해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고, 나아가 오브라헤의 노동 환경을 빌미로 식민지의 모직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2) 노예 노동력

대부분의 오브라헤 관련 연구에서는 오브라헤 노동력은 죄수 및 빗에 몰린 일반인으로 보았다. 그린리프는 엔꼬미엔다나 레빠르띠미엔토의 노동력이 오브라헤에서 주요한 인력 공급원이었음을 언급한 반면, 살부치는 선불 및 공장 내 매점을 통해 빗을 지게 된 원주민 및 일반인, 그리고 견습생들이 주요 노동력을 형성하였다고 하였다. 이들 외에도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에서의 흑인 노예가 고가인데 비해 오브라헤는 저렴한 노동력을 통해 생산 원가의 절감을 꾀한 산업이었으므로 노동력의 구성에서 노예는 매우 드물다고 보았다. 오브라헤의 주요 분포지가 멕시코시터를 중심으로 하는 인구 조밀지역으로, 도시 및 배후 촌락에 풍부한 노동력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었던 점도 이러한 주장에 타당성을 더한다. 이에 대해 프록터(Procter 2005)는 1630년 경 흑인계 노예 노동력이 오브라헤의 주요 노동력이었다고 반박하였다.

1630년 이전까지 멕시코시터, 꼬요아칸(Coyoacán), 플라스칼라(Tlaxcala), 바야돌리드(Valladolid), 궤레타로 등에서 고용된 오브라헤 고용인들의 대부

분은 자유 임금 노동자였고 흑인계 노예들이 원주민 노동력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으로 고용되었다. 또한 죄수들은 식민 기간 내내 오브라헤의 주된 노동력이 아닌 소수의 노동력이었다(Procter 2005, 38). 즉, 초기에는 원주민이 오브라헤의 주된 노동력이었으나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원주민의 비중이 감소하고 대신 흑인계 노예가 주된 노동력이 되었다. 스페인인의 정복 이후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의 원주민 인구는 전염병 및 식민 지배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1640년대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의 원주민 인구 규모 1백만 명에 그쳤다. 원주민 인구의 감소로 인해 1580~1640년 사이 멕시코 사회는 노예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다. 주요 노동력이던 원주민 인구가 감소하자 설탕 생산이나 광산과 같은 식민지의 주요 산업에서 노예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오브라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650년 경 노예 노동력은 멕시코시티의 대규모의 오브라헤에서도 매우 중요한 노동력이었으며 일부 오브라헤는 완전히 노예 노동력만으로 구성되기도 했다.¹⁶⁾ 그러나 1640년 네덜란드의 앙골라 공격으로 인하여 포르투갈 상인들의 노예 공급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같은 해 포르투갈이 독립하면서 스페인이 포르투갈과의 노예 거래 계약을 중단하기에 이르자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으로의 흑인 노예의 공급이 단절되었다. 따라서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의 노동력 공급은 더욱 어려워졌다(Procter 2005, 34-35).

노예 노동력의 공급이 어려워졌으나 1630~1750년 기간 동안 멕시코시티 및 라틴아메리카 식민지 전체에 걸쳐 모직물 생산에서 주된 노동력은 원주민이 아니라 흑인 노예였다. 1630년 이후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바야돌리드, 케레타로 등의 지역에서 특히 노예 노동력의 중요성이 증가하여 오브라헤 노동력의 일부 혹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Procter 2005, 35-36). 노예에 대한 투자액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으며 이는 성공적인 오브라헤 운영에서

16) 1660년에 이루어진 현장조사에 의하면 꼬요아칸의 6개의 주요 오브라헤에 고용된 노동력의 59%가 노예 노동력이었으며, 모든 오브라헤에는 노예 노동력은 고용하고 있었다(Horn 1997, 218; Procter 2005, 39에서 재인용).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¹⁷⁾ 오브라헤 소유주들이 노예 구입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이유는, 우선 식민시기 자유 노동력 시장이 전체적으로 취약하였기 때문이며 오브라헤에서 노예 노동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대부분의 노예 노동력은 14세 이상으로, 오브라헤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1~3가지 정도의 특별하고도 숙련된 작업을 맡았으며 그들은 원주민에 비해 훨씬 고급 기술을 소유하여 모직물 생산 공정에서 원주민 노동력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Procter 2005, 43). 즉, 1630년 이후 노예 노동력은 특히 기술이 필요한 작업에서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단순히 노예들이 원주민 노동력을 대체한 것이 아니었다.

1640년대 이후 노예 노동력과 함께 자유 임금 노동이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노동 시장의 취약성으로 인해 오브라헤의 성공 여부는 노예 노동력을 구하고 유지하는데 있었다(Salvucci 1987, 99). 따라서 18세기 초반 뿌에블라의 오브라헤 중에는 모든 고용인원이 노예로만 구성된 오브라헤들도 있었다(Procter 2005, 45). 뿌에블라의 제조업자들은 일부분일지라도 노예 노동력에 의존하였으며, 이들은 공장 안에만 갇혀서 노동을 해야 했다. 1767년 누에바 에스파냐에서의 공장 노예제를 철폐하기 위한 법령이 발안되었으나 당시 오브라헤가 가장 발전한 특히 궤레파로 지역에서는 조직적으로 이 법령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1781년 부왕 마르틴 데 마요르가 데 알칸따라(Martin de Mayorga de Alcántara)는 이 법령을 재공표하기도 했다. 훔볼트가 궤레파로의 공장에 대해 기록한 바에 의하면, 노예제에 대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궤레파로에서의 공장 노예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Humboldt 1811). 흑인계 노예 노동력은 1730년대 경까지 오브라헤에 상당한 규모의 노동력을 제공하였고 이후 점차 감소하

17) 예를 들어 1659년 멕시코시티에서 갈라르도 데 세스페데스(Galardo de Céspedes)의 오브라헤는 36,977페소에 팔렸는데, 이 중 35명의 노예의 가치가 11,500페소로 산정되었다. 이는 오브라헤 전체 가치의 1/3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1679년 팔린 발따사르 데 시에라(Baltasar de Sierra)의 오브라헤의 경우도 24,932페소에 거래되었는데, 21명의 노예 노동력의 가치는 5,975페소로 오브라헤 전체 가치의 1/4 정도로 산정되었다(AGN Tierras vol. 3221, 31033; Procter 2005, 42에서 재인용).

다가 1792년경에는 거의 사라졌다(Procter 2005, 39).¹⁸⁾

3) 부채 노동자

18세기 들어 멕시코시티 및 그 주변 지역의 오브라헤에서는 노동력의 구성이 노예 중심에서 부채 노동자로 서서히 이전되었다. 그러나 부채 노동자가 노예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이 오브라헤에서의 노예 노동력의 중요성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 시기 노예 노동력은 오브라헤 내에서도 아주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작업, 예를 들어 재단이나 방직 부문과 같은 핵심 부문을 맡는 경향이 더욱 짙어졌다. 이에 비해 자유노동자들은 방모 과정(wool carding)과 같은 최소한의 기술과 숙련도를 요하는 직업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동 시기 모렐로스의 설탕산업에서 일어난 노동력의 재배치 현상과 유사하다(Procter 2005, 47-48).

오브라헤 소유주들은 오브라헤 경영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우선 노동 시장이 넓지 않아 노동력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16세기에는 전염병으로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원주민에 대한 정책은 매우 엄격하였다. 따라서 오브라헤 소유주들끼리 노동력을 서로 빼가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소규모 작업장이나 고품질의 장인 정신을 강조하는 길드 조직과의 경쟁,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 일반 소비자들 겨냥한 저가의 대량 생산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결국 노동비를 절감하는 수밖에 없었다. 오브라헤가 메스피소, 물라또, 필리핀인, 흑인 노예 등을 노동력으로 사용하였지만 스페인인 범죄자 및 원주민도 주요한 노동력이었다(Greenleaf 1967, 240-241). 17세기 오브라헤에서는 소위 납치 및 감금이 자행되었으며 이는 18세기에도 지속되었다. 노동력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계약 노동자 및 채무 노동자를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종종 한 가족 전체가 임금을 미리 받고서는 몇 년간의 노동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18) 한편, 누에바 에스파냐 사회에서 흑인 노예 노동력은 점차 비싸졌기 때문에 노동력으로 사용되는 예가 감소하였다(Greenleaf 1967, 243). 멕시코시티에서는 노예를 가사도우미나 마부, 몸종 등으로 고용했으며 이는 노동력보다는 엘리트들의 사회적 신분 과시용이었으며 그 중요성이 점차 사라졌다(Procter 2005, 35).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고용주들은 부채에 음식 및 의복을 비롯한 여러 항목을 과금하였다. 또한 벌금도 빚을 늘리는 수단이었으며 술을 제공하여 빚을 늘렸다. 노동자들로 하여금 오브라헤에서 운영하는 매점을 이용하게 하여 일상 용품을 매우 높은 가격에 구매하게 함으로써 부채의 규모를 늘려갔다. 대부분이 문맹이었던 노동자들은 고용주들이 주장하는 고용 계약에 따라 부채 노동을 계속해야 했다(Greenleaf 1967, 241).

견습공들 또한 오브라헤의 주요 노동 공급원이었다. 1609년 공포된 법령에 따라 원주민 어린이들은 견습공이 될 수 있었으며 이 제도는 식민기간 내내 유지되었다. 죄수 노동력 또한 주요한 노동 공급원이었다. 오브라헤 소유주가 죄수의 벌금이나 빚을 갚아주는 대신 그 양만큼의 노동을 죄수에게 시킬 수 있었으며, 죄수의 식대나 다른 비용도 노동으로 받을 수 있었다. 오브라헤 소유주들은 죄수들의 노역을 빌리거나 구매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 또한 상당히 체계화되었다.¹⁹⁾ 따라서 사법이나 종교 기관에서 사소한 죄에 대해서는 오브라헤 형을 내리기도 하였으며 오브라헤는 하나의 감옥이 되어갔다. 사법 당국은 오브라헤 소유주들에게 죄수의 구류를 명하기도 했으며 이를 거절하면 1,000페소에 이르는 벌금을 물렸다. 이교도들도 오브라헤에서 죄수로서 복역하기도 하였다. 수도원과 같은 종교 기관에서는 역 내에 노동력 수용 시설을 만들고 오브라헤를 운영하기도 하였다(Greenleaf 1967, 242).

2. 뿌에블라, 오브라헤의 발생지

현재 멕시코시티로부터 2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뿌에블라에는 현대에도 멕시코의 대표적인 섬유 산업 발달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뿌에블라의 섬유산업의 전통은 16세기 도시의 건설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뿌에블라 데 로스 앙헬레스(Puebla de los Angeles)는 1531년 4월 16일, 당시 흑시라도 있을지 모를 원주민의 반란이나 식민지의 정치적 불안정 사태가 발생할 경우

19) 예를 들어 1717년 궤레타로에서는 죄수 한 명의 노동력을 1년간 사용하려면 시당국에 39페소를, 10년간 사용하려면 182페소를 지불하였다.

이를 적절히 방어하고 대처할 중심지의 필요성에 의해 전략적 거점으로서 세워졌다. 뿌에블라는 도시의 형성 이후 몇 년 이내에 누에바 에스파냐의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Bazant 1964, 56).²⁰⁾ 도시의 발전을 위해 스페인 정부는 뿌에블라에 다수의 혜택을 주었는데, 그 중 1532년 공포된 법령에 의거한 면세 혜택은 뿌에블라의 산업 발전의 바탕이 되었다. 뿌에블라를 처음 건설할 당시 스페인에서 이주해 온 장인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들은 푸대용 천이나 밧줄, 여러 직물들, 모직물 등을 제조하기 위한 오브라헤를 설립하였다. 1539년, 프란시스코 데 페나피엘(Francisco de Penafiel)이 ‘세고비아와 같은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 뿌에블라 최초의 공장을 열었다(Bazant 1964, 59-62).²¹⁾

정복자들이 중심이 되어 건설한 대부분의 누에바 에스파냐의 도시들과 달리 뿌에블라는 주로 스페인 출신의 가난한 이주민들이 중심이 되었으며, 뿌에블라의 초기 산업은 대부분 작은 소규모로 시작되었다. 엔꼬미엔다나 아시엔다를 소유하지 못하였던 뿌에블라 주민들은 뿌에블라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 옥수수, 코치닐 등의 원료와 풍부한 용수를 이용하여 섬유 산업을 일으켰다. 뿌에블라-플락스칼라 계곡의 숲은 산업 발달에 필요한 연료를 얻기가 쉬웠다. 게다가 스페인인을 위한 전략적인 도시의 성장을 위한 스페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은 산업 발전의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뿌에블라는 멕시코시티만이 갖고 있던 견직물 생산 허가까지 받아내면서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다.²²⁾ 1542년, 스페인 정부의 원주민 보호 정책에 따라

20) 정복 초기 식민지의 상황은 그리 안정적이지 않았다.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의 정복이 아직 진행중이어서 변경 지역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1524년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도착하였고, 꼬르페스와 반 꼬르페스파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식민지의 상황은 안정적이지 못하였다. 이에 새로이 도착한 스페인인들은 동요하고 있었다. 1530년 당시 플락스칼라의 주교인 훌리안 가르세스(Julián Garcés)도 스페인 국왕에게 멕시코시티와 베라크루스항 사이에 스페인인의 도시를 건설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였다.

21) 페나피엘은 스페인에서 모방직 산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인 세고비아 근처의 마을이었다. 당시 스페인의 세고비아 지역은 유럽 전역으로 대상으로 모직물을 생산하였고, 모직 산업 종사자만 200~300명에 이르렀다. 당시 누에바 에스파냐에서는 이를 스페인의 카스티야 지방에서 수입해 오고 있었다.

섬유 생산 공장에서 원주민 노예를 직조공으로 고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원주민 노예 금지령은 멕시코시티에만 적용되었으며 뿌에블라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이는 뿌에블라 산업 발전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멕시코시티의 공장들이 노예 노동력을 계속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뿌에블라로 이주하였다. 노예 금지령(Mendoza의 법령)은 1569년에야 뿌에블라에도 적용되었다(Bazant 1964, 61). 뿌에블라는 16세기 말과 17세기 초반의 오브라헤의 주요 중심지가 되었다.

16세기 후반 뿌에블라의 섬유 산업이 번창하자 누에바 에스파냐의 여러 지역에서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심지어 페루에서도 뿌에블라의 섬유 제품을 구매해 갔다.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의 모직 산업은 원주민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과 차이를 보였으며, 섬유 산업 분야가 전형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노동력이 산업 입지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유럽과 비교해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한편, 당시 유럽의 공장들이 농촌으로 이전해 나간데 비해 누에바 에스파냐의 섬유 산업은 북부의 대규모 아시아나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Bazant 1964, 62). 뿌에블라에서 발생한 오브라헤는 곧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 최대 소비시장이자 노동력 집중지인 멕시코시티에서 대규모로 번성하였다. 초기 오브라헤의 중심축은 멕시코시티-플락스칼라-뿌에블라 축에서 바히오 지역, 특히 께레파로 및 산 미겔 엘 그란데(San Miguel el Grande, 현재의 산 미겔 데 아엔데)로 이동하였다. 뿌에블라 및 플락스칼라의 산업은 17세기 중반 축소되기 시작하였고 멕시코시티와 꼬요아칸은 식민 기간 내내 오브라헤 생산의 중심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17세기에는 바히오 지역의 께레파로 및 산 미겔 엘 그란데의 모직 산업이 멕시코시티 및 꼬요아칸 지역의 산업보다 훨씬 더 대규모로, 더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였다. 17세기

22) 뿌에블라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견직물 생산 허가는 그 당시로는 매우 관대한 처사였다. 그러나 이는 스페인 정부의 진정한 관대함이 그 원인이 아니라 당시 스페인의 경제적 상황이 원인이었다.

바히오 북부 지역의 광산업이 활황을 띠면서 광산 도시에서 모직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모직물 생산의 중심지가 멕시코시터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지역에서 바히오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풍부한 자본으로 바탕으로 한 캐테파로의 오브리헤들을 대부분의 노동력을 노예 노동력에 의존하였다(Procter 2005, 46).

V. 식민지 정책 및 오브리헤의 쇠퇴

1. 정책적 제재

식민지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의 생산과 교역으로 인한 스페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스페인 정부 및 부왕 등은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누에바 에스파냐의 섬유 산업은 식민 초기부터 부왕들의 관심을 끄는 사안이었다.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에서 오브리헤는 스페인 식민 지배하의 3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식민 정부의 관리들의 업무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부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생산품의 관리에서부터 노동의 관리까지 오브리헤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부왕이 책임을 져야 했으며, 이는 때때로 골치 아픈 문제로 귀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수의 부왕들은 오브리헤를 필요악으로 생각하였으며, 오브리헤를 내구재 공급에서 중요한 사업체이자 수입과 고용의 원천으로서 보았다. 이는 식민지 공산품의 교역에서 식민모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식민정책과는 어느 정도 배치되는 것이기도 했다(Salvucci 1987, 3).

오브리헤가 발달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16세기 중반부터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은 여러 법령 및 규제를 통하여 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였다. 대부분의 법령 및 규제는 오브리헤 고용인들의 노동 환경과 관련된 것이었다.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청은 수시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오브리헤의 노동 환경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는 오브리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노동 부문의 감시를 통하여 산업의 발전을 통제하고 저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스페인은 누에바

에스파냐에 공산품을 제공할 능력이 부족하자 식민지의 산업을 억압하기 위한 제재 정책을 주로 취하였고, 이는 결국 오브라헤가 법을 어기거나 범망을 피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원인이 되었다(Greenleaf 1967, 250).

1560년 경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의 섬유 산업은 스페인의 섬유 산업과 경쟁할 정도로 발전하였고, 이에 스페인 정부는 식민지에서의 섬유 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1569년, 부왕 마르틴 엔리께스(Martín Enríquez)는 오브라헤에 관한 첫 번째 법령을 공포하였다. 이 법령은 향후 250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지속되었는데, 특히 노동력의 채용, 노동자에 대한 처우, 작업량, 제공되는 음식, 병자에 대한 치료, 종교적인 지도 및 수감자에 대한 감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벌금을 물렸다. 정부는 오브라헤에서의 기록을 유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작업량, 임금, 노동자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Greenleaf 1967, 232). 오브라헤의 설립 및 허가, 작업장의 이전 및 매각, 상품의 규격 및 종류 등에 제재를 가하였고, 특히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 큰 관심을 지녔다. 그러나 오브라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강한 규제는 스페인의 섬유 산업 부문을 식민지의 산업과의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식민지의 산업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스페인 정부는 오브라헤에서 고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제한하였다. 1573년 설립된 원주민 일반 법정(Juzgado General de Indios)에서는 원주민에 대한 학대 사건을 조사하였다. 원주민 일반 법정에서 조사한 오브라헤의 노동 환경 사례는 매우 극악한 경우에 그쳤지만 오브라헤의 노동력 부문에 대한 제재로서 작용하였다. 정부는 오브라헤 작업장의 노동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자주 실시하였는데, 1621년에 뿌에블라에서만 12번의 검사가 실시되었다. 이는 뿌에블라의 오브라헤 수가 감소하는 원인이 되어 33개였던 오브라헤가 1622년 22개로 감소하였다(Greenleaf 1967, 231-232).

1560년 공포된 오브라헤에 대한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1599년 7월 당시 부왕이던 몬테레이(Monterrey) 공은 4개월 안에 모든 오브라헤를 멕시코 시티, 뿌에블라, 오아하카, 바야돌리드로 재배치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더욱

엄격한 통제를 통하여 오브라헤 경영주들이 법을 준수하게끔 하기 위해서였다. 기간 내에 이주하지 않는 오브라헤들은 2천 두카트(ducats)에 달하는 과중한 벌금을 물어야 했다. 그러나 새 법령에 대한 반발이 거세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오브라헤 소유주들의 공공연한 위법 행위에 대해 1609년 네 개 지역 이외에서는 오브라헤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하였다. 1621년 필립 4세는 오브라헤의 허가증을 철저히 검사하여 허가증이 없는 오브라헤는 파괴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Greenleaf 1967, 233-234).

인구의 대량 감소와 전염병, 그로 인해 나타난 노동력의 부족, 원주민에게 우호적이었던 스페인인들에 의한 비판 등에 따라 필립 3세는 1601년 원주민 노동력에 대한 법령을 공표하였다. 이 법령에서는 원주민들이 소유한 작업장(obrajes de comunidad)을 제외하고는 섬유 산업 분야에서 원주민 노동력의 참여를 금지시켰다. 이는 오브라헤 소유주들에게 원주민 노동력을 흑인 노예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금지는 1609년의 법령에 의해 사라졌고, 대신 레빠르띠미엔토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1621년 오브라헤의 노동력 제공을 엔꼬미엔다로 제한하는 법령이 제정되었다. 한편 원주민 소년들을 견습생 명목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였다(Greenleaf 1967, 233).

오브라헤의 노동력에 대한 왕령이 실효성이 없음을 깨달은 스페인 왕실은 1680년, 최후의 법령을 내놓았다. 이 법령에서는 오브라헤 소유주들이 법을 잘 지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 매우 철저한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조사 목록에는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의 모든 섬유 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 고용 노동력의 규모 및 종류, 오브라헤의 면허증, 생산되는 옷감의 종류 등을 비롯해 식민지의 경제적 안녕을 위해 오브라헤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등까지 매우 자세한 사항이 포함되었다(Greenleaf 1967, 234-235).

식민지에서의 오브라헤의 발달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부왕들 뿐 아니라 스페인 왕실에서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일례로 1594년 스페인 국왕 필립 2세는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의 섬유산업의 발달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는데, 이는 당시 스페인의 무역량이 식민지의 섬유산업 발달로 인해 현격히 감소하였

기 때문이다. 필립 2세는 부왕인 벨라스코(Luis de Velasco)에게 “자세히 조사하여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 보고서를 올리라”고 명령하였다. 벨라스코는 1595년 페루를 떠나면서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섬유산업의 성장의 위협성에 대해 보고하였다. 1597년 오브라헤 생산물로 인해 스페인의 무역부분에서의 이익에 비해 산업 분야의 손실 및 위기가 더 심각하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Salvucci 1987, 9-10).

18세기 말 당시 부왕은 이미 누에바 에스파냐의 오브라헤가 대도시(멕시코 시티) 및 국가의 무역에 상당한 피해를 미치고 있음을 주지하고 있었으며, 당시 “거의 자유롭게 설치되던 (모직과 견직) 직조기는 반도(스페인)로부터 수입되는 일반적이고 간단한 직물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될 경우 파괴해야 한다”고까지 하였다. 또한 부왕령에서는 오직 스페인과의 교역에서의 편의를 위해서만 직조기의 설치가 허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alvucci 1987, 9).

그러나 모든 부왕들이 오브라헤의 발전을 부정적으로만 본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16세기 가장 주요했던 두 명의 부왕(멘도사(Antonio de Mendoza)와 벨라스코)이 오브라헤를 직접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식민지 산업으로서 오브라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장려하였다(Greenleaf 1967, 235). 식민시기 말엽에도 레비아히헤도 부왕과 아산사(Azanza) 부왕은 누에바 에스파냐의 직물 산업을 장려하였다. 레비아히헤도 부왕은 1792년 오랜 기간 이 지역의 숙원이던 방적 학교를 푹스틀라(Tuxtla)에 세웠으며, 면직 및 모직 생산업체의 설립을 장려하였다. 아산사 부왕 또한 모직물 및 실크, 면직물 생산을 장려하였다. 그는 1799년 누에바 에스파냐의 직물 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식민시기 말기 부르봉 왕조의 경제 개혁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를 남겼다.

2. 무역 환경의 변화

스페인령 아메리카는 이미 17세기 이래로 조선업 및 방적업 등을 비롯하여 담배, 식품 등으로부터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자체 내의 자급자족적

성향이 높아졌으며 스페인에 대한 식민지 경제의 의존도가 매우 약화되었다(Lynch 1981, 218-231; 김미경 2005, 279-280에서 재인용). 18세기 말 유럽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유럽과의 무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누에바 에스파냐는 훨씬 더 경제적 독립을 누릴 수 있었다. 게다가 해전으로 인해 은을 비롯한 재화의 스페인으로의 수송이 어렵게 되자 많은 돈이 식민지의 산업 건설에 배당되었다. 부르봉 왕조는 세계 개편을 통해 많은 오브라헤 소유주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 같았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오브라헤들이 창업하였다(Greenleaf 1967, 237).

아산사 부왕은 1800년 스페인 국왕 및 인디아스 자문위원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유럽의 전쟁 기간 동안 스페인과의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의 섬유 산업이 정부의 어떠한 도움이나 보호 없이도 매우 훌륭하게 성장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당시 누에바 에스파냐에서는 스페인에서 수입되던 것보다 훨씬 고품질의 섬세한 직물을 생산하였으며 이는 인디아스 자문위원회에게 큰 우려를 끼쳤다. 특히 18세기 말 전쟁으로 인해 산 루이스 포토시 지역의 은광 생산량이 줄어들자 노동자들이 광산을 떠났으며, 이 지역의 유지들은 부왕에게 산 루이스 포토시 지역에 시장을 세우고 더 많은 오브라헤를 세워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라고 압력을 가하였다. 당시 누에바 에스파냐에서는 식민지 자본주의 및 초기 민간 자본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Greenleaf 1967, 239-240).

한편 18세기 후반 가속화된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의 섬유 산업의 성장은 스페인의 상인 세력 및 직물 생산업자들에게는 우려스러운 일이었다. 당시 스페인의 전통적인 경제 그룹들은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의 산업화에 대해 여전히 강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부르봉 왕실 또한 식민지 내 제조업의 발달 및 외국과의 무역을 막고 스페인 중심의 경제체제의 확립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1765년 자유무역조례(Comercio Libre)를 선포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확장을 통해 1778년에는 자유보호무역 체제(Reglamento)로 돌입하였다. 이 조치들로 인해 관세가 인하되고 까디스 및 세비야의 무역독점 체제

가 종식되었으며 스페인과 아메리카 식민지 간의 보다 자유로운 무역체제가 형성되었다(김미경 2005, 279-280).

부르봉 개혁의 결과 실시된 스페인 정부의 상업 정책은 이중적이고 불확실했으나, 스페인과 스페인령 아메리카 간의 무역은 1797~1820년 사이 매우 활발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초반 스페인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약 70%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스페인의 식민지역들은 외국과의 자유 무역을 행하였다(Fisher 1998, 459).²³⁾ 한편 18세기 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부르봉 개혁에서도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은 스페인 식민지 내의 자유무역 체제에서 상당 부분 제외되었다. 부르봉 개혁은 지역별로 다른 정책이 세워졌는데, 예를 들어, 쿠바산 생산물에 대한 무역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의 무역에 관해서는 독점적인 통제 체제를 유지하였다(Andrien 2009, 640).

부르봉 개혁은 직접적으로는 페루 부왕령의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페루 부왕령의 오브라헤가 급격히 쇠퇴하였다. 반면 스페인령 아메리카 지역이 스페인 및 유럽의 모직 상품을 수입하면서 누에바 에스파냐의 모직 산업은 남아메리카의 시장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뿌에블라 모직 산업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쳤으며, 뿌에블라 오브라헤의 붕괴로 이어졌다.

23) 소위 부르봉 개혁이라 알려진 카를로스 3세의 정치적 개혁의 목적은 식민지에 대한 본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명령체계를 유지하는 강력한 중앙집권화의 달성에 있었다. 이 개혁은 아메리카의 재정복이라 불릴 만큼 스페인과 식민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이루어진 개혁의 주요 내용은, 우선, 스페인령 아메리카 식민지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 군대를 재배치하였다. 둘째, 1767년, 예수회를 추방하였다. 셋째, 본국 행정관을 식민지에 파견하였고, 넷째, 아우디엔시아의 인적 구성을 변화시켰으며, 다섯째, 감독관(Intendencia) 제도를 도입하였다(김미경 2005, 274). 카를로스 3세 재위 기간 동안의 부르봉 개혁은 왕권 정치의 일관성 및 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개혁은 식민지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전반적으로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재정복'에 다름 아니라는 평을 받았다. 개혁을 위해 공공 행정직의 매관매직이 금지되었고 무역 시스템을 자유화하였으며 행정 경계를 재정비하였고, 증세를 단행하였으며 식민지 지역의 군사 체제를 재정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 과정은 식민지에서의 반발 뿐 아니라 식민지의 크리오요 엘리트들에 대한 배제로 이어졌다(Andrien 2009, 639).

유럽으로부터의 기술 이전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시작된 뿌에블라의 모직 산업은 1622년에는 33개에 달하는 오브라헤가 성업하며 전성기를 맞았으나, 18세기 모직 산업의 중심지가 북부의 양모 생산지로 옮겨가면서 쇠퇴가 시작되었다. 18세기 중반 뿌에블라의 모직물은 궤레따로나 출룰라(Cholula) 같은 다른 지역 산 고급 모직물이나 까스피야 지역의 수입품과 경쟁하였으며, 경쟁에서 뒤쳐진 뿌에블라의 모직물의 품질은 더욱 조악해졌다. 결정적으로 남아메리카에 외국의 모직 상품이 수입되면서 누에바 에스파냐의 모직 산업은 남아메리카 시장 또한 잃게 되었고 이는 뿌에블라 모직 산업의 붕괴로 이어졌다. 뿌에블라의 오브라헤는 19세기에는 완전히 사라졌다(Bazant 1964, 64). 반면 뿌에블라와 경쟁 관계에 있던 멕시코시티와 궤레따로는 남아메리카 지역의 무역 개방으로 인한 영향력을 덜 받았다. 멕시코시티의 경우 뿌에블라에 비해 안정적인 대규모 시장을 지니고 있었고, 궤레따로 지역은 북부의 부유한 광산 지역을 시장으로 갖고 있었으며 북부의 대규모 양모 재배지와 인접하고 있어서 뿌에블라에 비해 품질 및 시장의 유지에서 유리하였다(Bazant 1964, 64). 그러나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대부분의 오브라헤는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유럽산 모직물의 수입으로 인해 급격히 쇠퇴하였고 사라졌다.

VI. 요약 및 결론

본고에서는 스페인 식민시기 스페인령 부왕령에서 발달한 대규모 모직 생산 양식인 오브라헤를 통해 스페인의 식민지 경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브라헤는 형성 원인부터 발달 과정, 그리고 쇠퇴 과정에서 식민지 정책 및 상황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식민지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스페인인 식민지를 원료의 산지 및 공산품의 소비지로 삼고자 하였으나 스페인의 국내 산업은 식민지의 수요를 충족할만한 공산품을 제공할 수 없었다. 스페인 왕실은 스페인령 아메리카와의 무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독점의 이익을 누리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왕실의 재정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스페인은

국내 제조업의 발달을 이루지 못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은이 유럽으로 유출되었다. 결과적으로 스페인은 누에바 에스파냐를 비롯한 아메리카 대륙 지역의 거대한 공산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으며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공산품의 생산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섬유 산업은 크게 전통적인 방식의 면직물 생산 부문과 스페인에서 유입된 모직물 생산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오브라헤는 스페인령 아메리카에서 형성된 비교적 대규모의 모직물 생산 양식으로, 원료의 가공부터 최종 상품의 생산까지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는 현대의 공장 체제와 유사하였다. 오브라헤는 생성 및 발달의 원인과 과정, 쇠퇴 원인 등에서 스페인의 식민지배의 영향을 받았다.

우선, 오브라헤는 스페인으로부터 건너온 기술자들이 역시 스페인으로부터 전래된 양모로 스페인산과 유사한 모직물을 만들면서 형성되었다. 식민지와의 무역 독점을 통해 세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한 스페인 왕실의 식민지 경제 정책으로 인해 스페인령 아메리카로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은 매우 고가였으며 이는 오브라헤의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스페인의 무역 독점 정책 뿐 아니라 플로타 비용이나 고가의 보험료 또한 스페인산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어 오브라헤 모직물의 경쟁력을 높였다.

오브라헤는 집약적 노동을 바탕으로 발달한 산업으로, 초기 오브라헤는 엔꼬미엔다 제도와 레빠르띠미엔토 제도를 통해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여 시작되었다. 오브라헤의 발생 및 유지에서는 유럽에 비해 저렴하고, 강도 높은 노동을 강제할 수 있는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오브라헤의 노동력은 초기에는 원주민이 중심이 되었으며 원주민에 대한 보호를 명목으로 식민지 당국은 지속적인 조사와 견제를 실시하였다. 당국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오브라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자 스페인 식민 당국은 오브라헤의 노동력을 노예 노동력으로 대신할 것을 유도하였다. 노예 노동력은 고가이고 노동 공급이 포르투갈의 대외 사정으로 인하여 원활하지 않았음에도 전문적인 인력으로서 오브라헤에서 주요한 노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열악한 노동 환경

으로 원주민 및 일반 식민지인들이 오브라헤에서의 노동을 꺼리자 오브라헤 소유주들은 부채 노동자 및 견습공 제도 등을 실시하였고, 죄수들을 노동력으로 위탁받기도 하였다. 스페인령 식민지에서는 노동 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오브라헤 소유주들이 노동력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으며 오브라헤의 노동 환경에 대한 부왕청이 지속적인 제재 및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스페인 왕실 및 부왕청은 기본적으로 오브라헤의 발전을 반기지 않았으며, 오브라헤의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던 16세기 말 오브라헤에 대한 여러 규제를 내놓았다. 대부분의 규제는 노동력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으며 부왕들은 수많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오브라헤의 성장을 견제하였다. 그러나 부왕들은 식민지 경제에서 오브라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장려책을 내놓기도 하였다.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의 오브라헤는 지속적으로 발달하였으며, 식민시기 말엽에는 그 성장세가 매우 두드러졌다. 특히 스페인 및 유럽의 전쟁으로 인이 스페인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은광업이 사양화하면서 오브라헤의 발달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스페인의 식민지 무역 자유화의 영향으로 뿌에블라의 오브라헤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은 부르봉 개혁의 개방 정책에서 제외되어 멕시코시틀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오브라헤가 식민시기까지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상품과의 경쟁에 노출된 누에바 에스파냐의 오브라헤는 급속히 쇠퇴하였다.

식민지배로 인해 조성된 가격 경쟁력과 불안정한 노동 시장에 대처한 왜곡된 노동 관행, 식민 당국의 지속적인 규제와 제재는 오브라헤의 발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저해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식민지배로 인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오브라헤는 산업의 측면에서 매우 허약하였으며, 이로 인해 식민시기 말엽부터 시작된 스페인 식민지의 자유무역체제와 식민지배 종료로 인한 경쟁력의 상실로 인해 몰락했다. 오브라헤는 식민지배로 인해 왜곡된 경제체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달관(2013), 「식민시대 볼리비아 사회와 노동체계의 특성」,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Vol. 24, No. 2, pp. 27-64.
- 김희정(2005), 「과테말라와 멕시코의 민속의상 위필(huipil)에 관한 고찰」, *대 한가정학회지*, Vol. 43, No. 3, pp. 131-145.
- 이재정·한희정·윤을요(2007), 「아스텍과 잉카 직물 디자인의 비교연구」, *기초 조형학연구*, Vol. 8, No. 4, pp. 781-788.
- 한정임(2005), 「페루 직물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 11, No. 2, pp. 170-177.
- 허미순(1993), 「페루직물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논집*, Vol. 13, No. 1, pp. 65-91.
- Andrien, Kenneth J.(2009), “The Politics of Reform in Spain’s Atlantic Empire during the Late Bourbon Period: The Visita of Josée Garcia de León y Pizarro in Quito,”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41, pp. 637-661.
- Assadourian, Carlos S.(1992), “The Colonial Economy: The Transfer of the European System of Production to New Spain and Peru,”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4, pp. 55-68.
- Bazant, Jan(1964), “Evolution of the Textile Industry of Puebla 1544-1845,”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7, No. 1, pp. 56-69.
- Corrales, Manuel(1978), *Las raíces del relato indigenista ecuatoriano*, *Revista de Critica Literaria Latinoamericana*, Vol. 4, No. 7/8, pp. 39-52.
- Cuello, José(1988), “The Persistence of Indian Slavery and Encomienda in the Northeast of Colonial Mexico, 1577-1723,” *Journal of Social History*, Vol. 21, No. 4, pp. 683-700.
- Fisher, John(1998), “Commerce and Imperial Decline: Spanish Trade with Spanish America, 1797-1820,”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30, No. 3, pp. 459-479.
- Greenleaf, Richard(1967), “The Obraje in the Late Mexican Colony,” *The Americas*, Vol. 23, No. 3, pp. 227-250.
- _____(1968), “Viceregal Power and the Obrajes of the Cortes Estate, 1595-1708,” *The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48, No. 3, pp. 365-379.
- Grijulva, Manuel(1985), *La Manufactura Colonial: La constitución técnica del obraje*, D.F.,

México: El Colegio México.

_____(1990), *Obrajes y Tejedores de Nueva España*, Madrid: Instituto de Estudios Fiscales.

Guardino, Peter and Walker, Charles(1992), “The State, Society, and Politics in Peru and Mexico in the Late Colonial and Early Republican Periods,”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19, pp. 10-43.

Hamnet, Brian(1971), *Politics and Trade in Southern Mexico 1750-182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rn, Rebecca(1997), *Postconquest Coyoacan, Nahuatl-Spanish Relations in Central Mexico, 1519-165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Humboldt, Alexander von(1811), *Political Essay on the Kingdom of New Spain*, Vol. IV, John Black(trans), London: Longman.

Kinsbruner, Jay(2005), *The Colonial Spanish-American City: Urban Life in the Age of Atlantic Capitalism*,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Moreno, Christiana Borchart de(1995), “Beyond the Obraje: Handicraft Production in Quito toward the End of the Colonial Period,” *The Americas*, Vol. 52, No. 1, pp. 1-24.

Pons, Frank(2007), *History of the Caribbean: Plantation, Trade, and War in the Atlantic World*, Princeton, NJ: Markus Wiener Publishers.

Proctor, Frank(2003), “Afro-Mexican Slave Labor in the Obrajes de Paños of New Spain,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The Americas*, Vol. 60, No. 1, pp. 33-58.

Salvucci, Richard(1981),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olonial Mexico: The Case of the Obrajes”,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41, No.1, pp. 197-199.

_____(1987), *Textile and Capitalism in Mexico; An Economic History of the Obrajes, 1539-184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Super, John(1976), “Queretaro Obrajes: Industry and Society in Provincial Mexico, 1600-1810,” *The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56, No. 2, pp. 197-216.

Tutino, John(2011), *Making a New World: Founding Capitalism in the Bajío and Spanish North America*,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Valdés, Denis(1987), “The Decline of Slavery in Mexico,” *The Americas*, Vol. 44, No. 2,

pp. 167-194.

Velázquez, Maria(1984), *Notas Sobre Sirvientes de las Californias y Proyecto de Obraje en Nuevo México*, D.F, México: El Colegio México.

Villanueva, Margaret(1985), “From Calpixqui to Corregidor: Appropriation of Women’s Cotton Textile Production in Early Colonial Mexico”,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12, No. 1, pp. 17-40.

김 희 순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pritikim@gmail.com

논문투고일: 2014년 4월 6일

심사완료일: 2014년 4월 9일

게재확정일: 2014년 4월 14일

A Study on Economic Systems of Spanish Colonies Through Reviewing Obraje: Centered on Nueva España Viceroyalty

Hee-Soo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Hee-Soon(2014), A Study on Economic Systems of Spanish Colonies Through Reviewing Obraje: Centered on Nueva España Viceroyalty.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economic system of Spanish colonies through reviewing development background and process decline of Obraje that is a production mode of a large of woolen textile developed in vice loyalty at the period of Spanish colony. Spain tried to make a colony that can provide resources and consume products, but it could not afford the demand of colonies. In addition, Spanish loyal palace tried to maximize tax revenue through trade monopoly between colonies. Such a process contributes to continue economic independence during Spanish colony control and colonies could make some products. Obraje has a colonial characteristics of industry developed in Spanish America during colonial control. First of all, Obraje was formed to make a woolen textile with wool brought from Spanish. Due to colonial economic system that Spanish loyal palace has a specialty on trade monopoly, Europe and Spanish products could have price competitiveness and those characteristics became the development factor. Furthermore, labor power input in Obraje was provided by the systems of Encomienda and Repartimiento and Obraje used slavery and mandatory debt labor force due to unstable labor market of Spanish colonies. The Obraje of Nueva España has been developed to export entire Spanish colonies, however, due to the changes in Spanish colonial policy, that is to say, the break down of monopoly by free trade through Bourbon, Obraje has disappeared with the end of colonial control.

Key words Obraje, Spanish colonial control, Nueva España, Trade monopoly, Textile industry, Bourbon reform